

📖 전례안내

📍	합동미사	
	12월 4일	12월 11일
해설	송연주	유소정
독서	허선우	이제니
복사	김영욱, 김대산	현종한, 유수빈
선창	성가대	성가대
반주	박승희	박승희
평일미사	805 회	
목주기도	53686 단	

🎵 화답송

주 님 이 시 대 에 정 의 와 평 화 가 꽃 피 게 하 소 서

- 하느님, 당신의 공정을 임금에게, 당신의 정의를 임금의 아들에게 베푸소서. 그가 당신 백성을 정의로, 가련한 이들을 공정으로 다스리게 하소서.
- 저 달이 다할 그때까지 정의와 큰 평화가 그의 시대에 꽃피게 하소서. 그가 바다에서 바다까지, 강에서 땅끝까지 다스리게 하소서. ◎
- 그는 하소연하는 불쌍한 이를, 도와줄 사람 없는 가련한 이를 구원하나이다. 약한 이, 불쌍한 이에게 동정을 베풀고 불쌍한 이들의 목숨을 살려 주나이다. ◎
- 그의 이름 영원히 이어지며 그의 이름 해처럼 솟아오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민족들이 그를 통해 복을 받고 그를 칭송하게 하소서. ◎

🎵 본당 소식

1. 대림 판공 성사 및 특강

일시: 오늘

예수님의 성탄을 준비하기 위한 대림 판공 성사 및 특강이 오늘 있겠습니다. 초대 신부님으로 콜럼버스 한인성당의 김덕우 안토니오 신부님이 오시겠습니다.

2. 총구역 공지사항

대림절맞이 성당 대청소가 12/11 미사후에 있겠습니다. 각 구역에서는 청소용품 준비하셔서 지정된 장소 (구역장님께 문의) 청소 부탁드립니다.

3. 주일학교 소식

1) 12월 주일학교 교사 회의 (Teacher's meeting - Today)

시간(time): 8:30pm

장소(location): Zoom meeting

2) 주일학교 스케줄 (Sunday School schedule)

주일날자 (Date)	스케줄 (Schedule)	Lector2	Altar2
12/4/2022	교사회회		Dae San Kim
12/11/2022			Subin Yoo
12/18/2022			Steven Kim

*주일학교 스케줄은 <https://sites.google.com/site/clesakkccss/> 에 가시면 언제든지 보실수 있습니다. (The link to Sunday School schedule)

우리가 흔히 ‘회개’ 라고 말하면 잘못을 뉘우치고 고치는 것을 떠올리지만, 교회 안에서 사용하는 ‘회개’라는 말은 잘못에 대한 뉘우침보다 ‘하느님께 되돌아간다’는 의미를 지닌 말입니다.

“때가 다 되어 하느님의 나라가 다가왔다. 회개하고 이 복음을 믿어라!” 이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한 마디로 복음을 선포하는 일이었고, 그 선포의 내용은 하느님의 나라였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느님의 나라가 다가왔다는 복음에 대한 신앙의 전제조건이 바로 ‘회개’하는 일이었음에 주목해야 합니다. 하느님의 나라는 곧 어디까지나 회개한 다음에야 올 수 있는 나라인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야 하는 회개의 삶은 무엇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사랑의 계명에 충실한 삶’ 이어야 할 것입니다. 곧 물질의 소유와 자기 만족감에 집착하지 않으면서, 인간다운 사랑의 눈길을 형제자매들에게 돌리는 삶을 말합니다. 공동체와 관계없이 나 혼자 동떨어진 채로 형제자매들의 어려움을 외면하는 삶은 그리스도인다운 삶일 수가 없는 것이지요. 한마디로 형제자매들을 위해 사랑을 실천하는 삶입니다.

가톨릭교회 교리서(1435 항)는 우리가 살아야 할 회개의 삶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일상생활에서의 회개는 화해의 행위,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관심, 정의의 실천과 타인의 권리 옹호, 형제들에게 잘못을 고백함, 형제적인 충고, 생활에 대한 반성, 양심 성찰, 영적 지도, 고통을 받아들임, 정의를 위해 박해를 견딤 등으로 실현된다.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가장 확실한 회개의 길이다.”

우리는 죄의 방탕한 생활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해 눈을 뜨고 회개하여 완덕의 길에 들어설 수 있습니다. 교회는 회개하는 자에게는 하느님의 축복이,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는 멸망이 따른다는 것을 알려주면서, 회개의 증거를 행실로 보여야 함을 역설하는 성경의 가르침에 충실하여야 합니다. 교회가 전하는 하느님, 또 교회가 믿고 따르는 하느님은 바로 언제나 우리의 회개를 기다리시고, 그것을 무엇보다도 기뻐하는 ‘사랑과 자비와 용서의 하느님’ 이십니다.

교육선교위원회

(가해) 대림 제2주일 (2022년 12월 4일)

미사		성직자			교리 및 모임		
평일	목 (19:30)	주임 신부	정성훈 모세	93moses@gmail.com Cell: 216-801-0747	제대회 기도회	10:30	수요일
	교사회 기도회				19:00	수요일	
주일	10:00 (합동)	종신 부제	신철야 안드레아	cjshinmd@gmail.com Cell: 440-823-3797	남성 기도회	18:00	화요일
	19:30 셋째 토요일				캐톤 기도회	20:30	수요일
캐톤	19:30 셋째 토요일	종신 부제	신철야 안드레아	cjshinmd@gmail.com Cell: 440-823-3797	에파타 모임	10:30	금요일
					주일학교	11:30	주일

클리블랜드 성 김대건 한인 천주교회 St. Andrew Kim Korean Catholic Church



주보위원	이승엽 유스티노	seungyup.lee.seungyup@gmail.com	216-308-3870
------	----------	---------------------------------	--------------

본당 주소 : 2310 West 14th Street, Cleveland, OH 44113

☎ : 216-861-4630 홈페이지 : www.clekcc.org 이메일: office@clekcc.org